

2023 새해 이렇게

윤병태 나주시장

# “20만 강소도시 원년... 나주 대전환 7대 전략 추진”



###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착 지원·권역별 테마 관광 명소화·첨단과학도시 조성

“영산강 시대 관광 활성화 등 나주 대전환 7대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나누담게, 지난 해 뿌린 희망 씨앗을 싹 틔우고 튼튼하게 키워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2023년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계묘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윤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복 체감형 시책을 펼쳐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이 될 7대 전략으로는 ▲영산강 시대 관광 활성화 ▲돌아오는 농촌·지속 가능한 농업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희망찬 혁신도시 ▲미래 인재 양성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생각이 현실이 되는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윤 시장은 먼저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

는 관광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며 “나주는 생태·레저·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나주목관아 복원,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금성산 상시개방과 더불어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과 권역별 테마 관광 명소화, 3600억원 규모 지역 맞춤형 통합한 사업을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농촌 빈집 재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라며 “나주 농업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배 명품 브랜드와 육성, 나주만의 차별화된 밥상 브랜드 정립을 통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 전략도 덧붙였다.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전략으로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따른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을 언급했다.

또 올해 에타 통로를 마친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정부 균형발전 기초에 맞춘 명품 혁신도시 비전 청사진도 드러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3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공실·약취 문제 해결과 복합혁신센터·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배매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혁신도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미래 100년의 인재를 키워낼 교육 정책으로 특성화고교와 16개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을 연계하고 학생 과밀화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등 명문고 육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꿈 이름 배움 카드(1인당 15만원 포인트) 등을 지원키로 했다.

덧붙여 윤 시장은 “원로자문회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시 전력반도체 육성위원회 등을 구성해 전문가 고견을 수렴할 것”과 “연공서열인 인사평가시스템을 탈피하고 ‘동료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중립적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 각종 예산 사업 효율성을 판단하고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며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져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재정 효율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16개 공공기관, 국가·전라남도 기관과의 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광주·전남 경제통합을 위한 가고 역할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에너지벨트 등 광주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끝으로 “자랑스러운 나주인은 지난날 많은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현명하게 바꿔왔던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행복나주, 으뜸 나주를 향한 나주의 꿈을 이뤄나가자”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 강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국비 11억 확보

### 고려청자·다산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관람객, 올해 연말부터 관람 가능

강진군이 전남도가 추진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강진군은 고려청자박물관과 다산박물관 2개소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도비 5억 3000만 원, 군비 5억 7000만 원) 콘텐츠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한 고려청자박물관은 올해 2월까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신규 콘텐츠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완성된 콘텐츠는 12월부터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강진군은 실감콘텐츠 기술을 박물관 전시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고려청자박물관과 나란히 자리한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체험 시설이 있다.

2022년에는 문화부 공모사업을 통해 VR체험, 놀이기구와 실감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 셀라톤’을 구축했으며, 전라남도 문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고려청자

박물관에 XR3면 영상실을 구축했다.

다산박물관에도 2021년에 실감영상실을 구축해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디지털박물관에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청자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명품 청자의 도시 강진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방문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을 대표하는 고려청자 박물관과 다산박물관에 4차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며 “더욱 업그레이드된 고려청자박물관과 다산박물관을 조성해 ‘청자’와 ‘다산’을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관광도시 강진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인구 많은 화순 광덕지구 ‘민원출장소’ 개소



지난 2일 열린 화순읍 민원출장소 개소식에 참여한 구북구 화순군수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이 화순읍 민원출장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민원 업무를 시작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화순읍 민원출장소 개소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와 화성동 화순군의 회 의장을 비롯해 화순군의원, 화순읍 사회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관내 인구가 가장 밀집한 광덕지구에 새로 문을 연 화순읍 민원출장소는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사실 확인, 가족관계, 제적등본, 농지 대장, 지방세, 국제 관련 서류 같은 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 다만 가족관계 관련 신고, 정정(제적 포함)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 신규 등록·변경, 전입신고는 기존의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읍 인구는 화순군 전체 인구의 63%인 약 4만 명이 달한다. 이 때문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민원이 집중돼 군민의 불편이 컸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삼급종합병원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읍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어 출장소 신설 건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카타르월드컵 국대 나상호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담양군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가 고향인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나상호는 1996년 담양군 수북면에서 태어났으며 농주초등학교, 광양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단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FC서울에서 뛰고 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의 성과를 거둔 국가대표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쌀, 한우, 떡갈비, 전통주 등 14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나상호 선수의 기부금을 계기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 함평군,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10일~3월10일 8주 ... 10~11일 경로당 방문 지급 서비스

함평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4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1억원 규모의 제4차 군민재난지원금을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3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8주 간이다.

함평군은 주민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10

일과 11일 이틀 간 공무원 360여 명이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민은 지급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함평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지원자 모집

31일까지 접수... 영농지원·기술보급 2개 분야 48개 사업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 농촌지도 시범·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영농지원 분야에서 ‘주소지 일관기 계화 장기임대사업’ 외 7개 사업, 기술보급 분야에서 ‘단통하우수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외 39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에 적합한 주민 및 단체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거쳐 2월 중 농업신학협동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는 스마트 농업과 저탄소 농업 등 친환경 농업 저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교육을 연계 실시해 농업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지도 사업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성군, 벼 출하장려금 4억원 지급



김한중(왼쪽 네번째) 장성군수가 지난해 8월 벼 수확 시연회에 참석, 농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지역농협 등에 벼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 지원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장성군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40kg 포대당 2000원을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지원 물량은 약 21만 3000포대로 사업비 4억3000만원 전액 군비로 충당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1등급 기준 6만 4530원으로 전년(7만2918원)보다 13% 하락해 농가 시름이 여전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전년 대비 쌀 수매 물량을 204% 확대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에 노력해 왔다. 또 쌀값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통합 RPC와 지역농협 출하 농가에 출하장려금 지급을 마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벼 생산 농가 지원, 벼 보급종 포대당 1만 원 지원 등 다양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 중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출하장려금 지급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벼 재배 농가를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